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평일에도 신구약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부합시다” 교회내 ‘서울성경대학’ 개설

평생 성경공부 과정인 '서울성경대학' 이 개설된다.

서울교회는 평일을 이용하여 신구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성경대학을 개설기로 하고 올 9월부터 본격 개강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성경대학은 올 상반기에 개설되어 읍기 공부로 큰 호응을 얻은 아담성경공부교실이 그 모체로 이번에 새로 강좌와 강사진을 구성하고 일정을 확정하여 성경대학으로 확대 발족시키게 된 것이다.

서울성경대학은 신구약 전체를 강좌과목으로 하여 학기제로 운영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서울교회 성도뿐 아니라 타 교회 성도들도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정원은 각 강좌별로 100명 이내가 원칙.

“배우고 행하고 전하는 교회”를 학훈으로 하는 이 성경대학은 학기제로 운영되며 10주를 한 학기로 하여 1년 중 봄과 가을에 2개 학기가 진행된다. 봄 학기는 3월부터 6월까

지, 가을 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강의 시간은 매주 월·화·목요일 새벽과 낮, 저녁 1시간씩이다.

또 학점은 과목당 3학점이며 출석일의 3분의 2를 채우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매 학기마다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강좌별로 수료증서를 수여하며 다른 강좌 수강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매 학기마다 강좌를 이수하고 신구약 전체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게 되며 졸업한 성도에게는 졸업증서가 수여된다. 서울성경

대학의 운영은 서울교회 교육위원회가 당회의 허락하에 기획하고 실시한다.

교회는 이번 서울성경대학의 개설을 계기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국시민 양성”이라는 서울교회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보다 많은 성도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교육위원회나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서울성경대학 교과과정표

학기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강의실	비고
제 1학기 (97. 3.~6.)	읍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403호	아담성경교실
제 2학기 (97. 9.~12.)	마가복음	월요일 오전 10시	이순환 목사	403호	
	베드로서	월요일 오후 8시	김명현 목사	403호	
	아가	화요일 오전 6시	박귀환 목사	403호	
	다니엘	화요일 오후 8시	이성득 목사	403호	
	읍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403호	아담성경교실

파키스탄 선교여행단 5일(화) 귀국

지난 달 파키스탄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던 파키스탄 선교여행단이 8박9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5일(화) 서울로 돌아왔다.

파키스탄선교여행단은 그동안 카라치, 라홀, 머리, 이슬라마바드, 페샤와르, 페이살라바드 등 현지의 한인 교회와 현지 교회를 방문해 집회를 열기도 하고, 박종상 선교사 등 한국인 선교사와 파키스탄의 김치동문, 선한 사마리아인병원, 아프간 난민촌 등을 방문, 격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선교여행단은 자국 복음화는 자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명제하에 파키스탄에 흩어져 있는 '95김치동문들을 중심으로 핼치(PIMCHI; Pakistan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를 조직토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파키스탄에도 현지교회 지도자에 의한 목회자 재교육프로

그램이 실시될 될 예정이다.

또 현지의 선교사들의 모임에서는 이종윤 목사를 내년 파키스탄에서 개최될 '98 여름 선교대회('98 Summer Convention)의 주장사로 초빙기로 결정했다. 이 대회는 파키스탄에 파송받은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위한 것으로 파키스탄복음화에 일익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이번 선교여행단은 파키스탄을 포함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선교전략 수립 등 세계 선교를 위한 많은 귀중한 제안을 갖고 돌아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종윤 목사 등 5명의 서울교회 당회원으로 구성된 이 선교여행단은 파키스탄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과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월) 출국했었다.

이번 주 개최될 수련회 고등부·청년부·장로수련회

고등부·청년부수련회와 장로수련회가 이번 주 각각 개최된다.

고등부수련회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2박 3일간 홍천 청소년수련의 집에서 “주의 계명을 내게 가르치소서”를 주제로 갖는다.

또 청년부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2박 3일간 미금시 미금수련원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살리이까”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개최한다.

한편 장로수련회가 15일(금)부터 16일(토)까지 1박 2일간 열린다.

지난 달 17일 유치부여름성경학교를 필두로 그간 계속해 온 올해 교회학교 및 각 부서의 여름행사는 이번 주말에 있을 장로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게 된다.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3장 1절 ~ 5장 12절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음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열둘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 곳에 두라 하라...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둘을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3:1-5:12)



이종운 목사

요단강을 건널 때

오랫동안 무엇을 기다리다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몹시 흥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사막으로부터 긴 여정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땅입니다(창15:18~21). 또한 이 약속은 족장들에게 반복된 것이기도 합니다(수3:5).

요단 강을 건너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5장에 가득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① 요단강을 건널 것 ② 밟고 지난 돌을 기념으로 세울 것 ③ 길갈에 열두 돌들을 세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할 것 등 세 가지였습니다(3:7, 3:12, 4:2~3, 4:14).

1.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의 법궤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는 방법은 홍해를 건널 때와 동일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언약의 법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요단 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민11:33~36).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궤를 메고 건넌 것은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도 정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한편 법궤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40년 광야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성결케 합니다.

법궤가 있는 곳은 심판이 임한 곳입니다(민1:1~15).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징합니다. 법궤를 덮은 속죄소(mercy seat)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의 날에 백성의 죄를 위해 피를 뿌렸습니다. 백성의 죄는 짐승의 머리에 전가되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롬6:23). 아담과 하와를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때부터 속죄의 법에 피흘림이 있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리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류의

죄가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2. 요단강을 건널 때 밟고 지난 돌로 기념비를 세워야

여호수아는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불러 요단 강 가운데 하나님의 궤 앞에 들어가서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메라고 했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돌들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길은 험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음을 후손들에 기억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4:5~7).

또한 그것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신앙과 교훈을 쉽게 잊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워 자녀들에게 이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4:21~23).

그 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며 살아계시고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기리고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4:24).

3. 요단강을 건널 때 길갈에서 성례식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다시 할례와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 후에는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것이므로 전쟁을 앞둔 군인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같이 위험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것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전략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役事)를 기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조금 서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빨리’가 국민 대부분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바르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교여행보고서

“눈을 들어 희어진 밭을...”

서울을 떠나 중간 기착지인 태국의 방콕을 거쳐 파키스탄의 가장 큰 도시인 카라치 공항에 도착하자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관계자들이 우리 일행을 영접했다. 비가 내리는 중에 곧바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첫 목적지인 라홀에 도착했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18시간 만이었다.

자연환경은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참으로 충직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인더스 강이 흐르는 도시는 온통 숲으로 덮여있고 식민지 시절엔 영국의 곡창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으리 만큼 토지는 비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채 그들의 영혼은 메달라 있었다. 공항에서는 오갈 데 없는 이들이 뒹굴고 있었고, 땀가게 앞에는 문을 닫는 시간에 그날 팔다 남은 빵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길게 줄을 선 가난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인간을 불쌍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선교단 일행은 가슴이 타들어가듯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고 복음전파의 긴급성을 절감했다.

PIMCHI 운동과 '98 여름 선교대회 계획

라홀에서 박종상 선교사를 기쁘게 만났고 우리교회와 협력한 김병교 선교사와 파키스탄의 김치 동문들을 만났다. 1995년 서울의 김치 세미나에 참석한 21명의 파키스탄 김치동문들은 돌아가 새벽기도회를 하고 교회학교를 개설했노라고 했다. 주일에 예배드리기가 힘든 이곳에 교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나 병원 사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곳 교회는 영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매우 약했다. 무엇보다도 훈련된 목회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종윤 목사는 목회자 재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의 교회성장 비결과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소개했다. 파키스탄의 김치동문들은 목회자가 바로서야만 교인들이 살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파키스탄에 흩어져 있는 김치 동문들이 힘을 모아 핼치(PIMCHI)를 구성하고 이를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movement)으로 전개해 가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목회자 재훈련의 기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파키스탄에서 사역중인 40여 개국 400여 명의 선교사가 모두 모여 이종윤 목사를 주강사로 한 선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화해의 사도로

머리 지역에서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파키스탄 전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선교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종윤 목사는 효과적 인 파키스탄 선교에 관해 열강했고, 선교사들은 파키스탄 선교 전략수립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사들 간에 그간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한 마음으로 동역하기를 다짐하는 화해와 일치의 시간이기도 했다.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

선교단 일행은 아침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여행 중의 사역을 살펴보았다. 옛날처럼 이제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곳에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바울의 선교여행 목적 중의 하나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새 힘을 북돋워주는 것이었다. 우리도 한인교회나 한인선교사들, 가정교회와 난민촌 등 6개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한국의 성도들이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때 그들은 큰 용기와 새로운 힘을 얻는 듯 했다.

아프간 난민촌에서

18년 간의 내전으로 아프간 난민 400만명이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가장 많은 난민이 모여 있다는 페샤와르를 방문했다. 여러 나라 선교단체에서 구호물품 조달, 마약중독자나 장애인 재활 사업, 사회간접시설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프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그곳에서 사역하는 이들의 설명을 들으며 난민촌을 둘러 보았다. 또 난민 처소에 직접 들어가 그들을 만나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칭찬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기를 당부했다. 난민촌에서는 100달러만 있으면 700명의 하루 식사가 해결된다고 했다. 난민 한 사람의 하루 식비는 130 원이고, 한 가족이 7~10명으로 대부분 대가족인데 한 가족의 주택을 짓는 데 소용되는 비용은 13만원 정도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회교과격집단인 탈리반이 집권하고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고 한국인들은 전문 취업인으로 아프간에 입국해 간접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아프간 난민 중 기독교 신자들을 만나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한편 그들의 간증도 들었다. 우리는 아프간을 상대로 복음전도와 구제사업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 세 곳을 차례로 방문했고 박종상 선교사의 비자 문제와 사역의 길을 여는 일에 큰 성과를 거두어냈다. 유소양 선교사와 두 딸 은혜, 은경도

모두 현지에서 잘 적응하고 있으며 건강한 모습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파키스탄에서는 서양선교사보다 한국선교사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인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근로자들을 매우 신뢰하여 많은 일들을 의뢰해 오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일하는 건설 현장엔 아프간이나 파키스탄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공휴일을 금요일에서 주일로 전격적으로 바꾸었다고 했다.

게시꾸시(얼마나 행복한가) 할렐루야!

밤 9시 30분 파키스탄 교회에 들어서려는 순간, 교회 출입구에는 어린이들이 줄지어서서 꽃을 뿌리며 우리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대신 받는 것같이 몹시 황송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칸 목사는 이종윤 목사의 제자로 한 때 서울에서 유학생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페이살라바드 교회에서의 찬송은 우리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게시꾸시... 합뿌르브 예수겔리에 할렐루야!” “예수님께 속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가!” 찬송을 한 시간 넘게 열광적으로 부르는 300여 명의 성도들. 그들과 주일예배를 두 차례 드리면서 그들의 순수한 모습과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생명이며 한 형제임을 확인하면서 북받쳐오르는 감격을 자제하기 어려웠다. 비지땀을 흘리면서 설교한 이종윤 목사의 얼굴도 상기된 그대로였다.

마치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일정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다. 추수할 곳이 많으니 일꾼이 보태달라는 외침을 들었다.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지혜, 선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일에 동참해야 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고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이름을 함께 하되 무엇보다 복음을 속히 전해주어야 한다는 긴박감으로 지금 우리의 가슴은 터질 듯하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치 우리를 천사처럼 우리를 대접해 주신 성도들과 카라치 총영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빌면서 보고서를 마치려 한다. 아울러 우리 걸음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눈을 여시사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공훈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드린다. -선교여행단 일동-

